

건설기업, 시멘트 불매운동 나서

쌍용양회 · 동양시멘트 공급제품 구매중단 ... 가격인상에 적극 대응

시멘트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대형 건설기업들이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 공급제품 구매를 중단한다.

대형 건설기업 31사의 자재 담당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회는 시멘트 1-2위인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의 시멘트 공급제품과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레미콘까지 구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월10일 발표했다.

구매중단 결정은 시멘트 생산기업들이 2012년 초부터 시멘트 가격을 톤당 6만75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인상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중소 레미콘기업들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반발해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2월22일부터 레미콘 조업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레미콘의 최대 수요를 차지하는 건설기업들이 레미콘기업들의 편을 들어 시멘트기업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기업들은 2월13일부터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에서 생산한 모든 시멘트 및 레미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방침이다.

협의회는 가격을 인상한 시멘트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구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제재 대상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1-2위사만 대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 등 시멘트 생산기업들은 주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오르는 등의 이유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생산기업 관계자는 “시멘트는 그동안 내부경쟁으로 가격을 내린 것인데 건설기업들이 공동으로 구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정경쟁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멘트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 톤당 6만7500원이었던 시멘트 가격은 2010년 경쟁 과열로 5만3000원대까지 급락한 후 2011년 6만7500원으로 다시 인상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0>